

과학 혁명과 계몽사상

[근대 철학의 발달(『비상 교과서』)]

01. 성격

- 전통적 권위와 편견에서 해방, 주체적으로 사물 인식
- **귀납법(induction), 연역법(deduction) 등 과학적 방법론**과 사고방식을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데 적용 → 근대 과학 혁명에 기여

02. 철학가

베이컨 (1561~16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과 실험 중시, 경험론의 토대 마련 • 홉스(1588~1679), 로크(영국 경험론 철학의 시조, 1632~1704)의 계승 • 『노붐 오르가눔(Novum Organum, = 신기관(新機關))』 저술(1620)
데카르트 (1596~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공리를 바탕으로 결론을 추론하는 연역법 주장 • 합리론의 토대 마련 • 『방법서설(Discours de la Methode)』(1637)
칸트 (1724~18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론과 경험론의 종합 → 관념론의 토대 마련 • 『순수 이성 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1781)

[과학 혁명]

01. 개념

- 16~17세기에 일어난 과학의 발전과 세계관의 변화

02. 배경

- 이슬람의 과학과 기술 수용, 르네상스 시대의 학문 발전
- 과학적 사고방식 발달

✿ 기계론적 우주관

우주와 자연계를 신의 섭리가 아닌 일정한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기계로 간주하고, 그 인과 관계를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근대 과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03. 내용

천문학	갈릴레이(1564~16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여 지동설 옹호(1609) • 낙하 실험 등을 통해 새로운 운동 법칙 발견 • 가톨릭교회의 종교 재판 회부(1633)
	케플러(1571~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성 운행의 법칙(1609) • : 화성이 태양을 타원 궤도로 회전함을 밝힘 → 지동설의 수정·발전
	뉴턴(1642~1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보편적인 수학 공식으로 설명 • 기계론적 우주관 확립 •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프린키피아)』(1687)
의학	베살리우스(1514~15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 해부학의 토대 마련,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파브리카)』(1543)
	하비(1578~16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찰스 1세의 주치의, 혈액 순환론 연구, 과학 혁명 본격화 • 『심장과 피의 운동에 대하여』(1628)

과학 혁명과 계몽사상

[사회 계약설(theory of social contract)]

01. 정의

- 17세기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대응
- 자연 상태에 살던 개인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합의나 계약을 맺어 국가와 사회가 출현했다고 보는 이론

02. 특징

- 과학 혁명의 영향
- 자연법(自然法) 사상을 토대로 발전

☆ 자연법(natural law) 사상

자연계에 법칙과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도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법이 있다는 믿음이다. 근대적 자연법에서는 그 핵심을 인간의 이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성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03. 대표 인물

홉스 (1588~16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투쟁)’ 으로 파악 • 자연 상태의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맺어 자연권을 군주에게 양도 • 『<u>리바이어던(Leviathan)</u>』(1651) → <u>절대 군주제 옹호</u>
로크 (1632~17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화로운 상태 • 중재자 부재,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여 불편 → 계약을 통해 정치 공동체 형성 • 정부 또는 통치자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u>저항권 행사</u> 인정 • 『<u>시민 정부론</u>』(명예혁명 옹호, = 통치론, 1689 or 1690), 미국 혁명·프랑스 혁명에 영향
루소 (1712~17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일반 의지</u>의 형성과 <u>인민 주권의 원리</u> 제시(『<u>사회계약론</u>』, 1762) • 프랑스 혁명의 이론적 기반 제공

☆ 일반 의지(volonte generale)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의지를 말한다. 공동체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이 합의하여 정치권력과 그 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의지이다.

[계몽사상(enlightenment)]

01. 배경

- 기계론적 우주관, 합리주의 철학, 로크의 정치사상의 영향

02. 내용

- 18세기 프랑스(살롱)를 중심으로 유럽에 확산
- 이성 중시, 미신과 무지 배격, 불합리한 제도와 관습 타파
- 사회와 정부를 합리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사회는 진보한다는 믿음



<아담 조프랭의 살롱>

03. 사상가

몽테스키외	1689~17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혁명 이후 영국의 정치 체제 칭송 • <u>삼권 분립 주장</u>(『<u>법의 정신</u>』, 1748) → 미국 헌법에 영향
볼테르	1694~1778	• <u>관용의 원리, 신앙과 언론의 자유 설파</u> , 계몽 전제 군주의 개혁 지지
루소	1712~1778	•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 주장, 『 <u>사회계약론</u> 』·『 <u>에밀</u> 』 저술(1762)
디드로	1713~1784	• 당대의 실용 지식을 집대성해 『 <u>백과전서</u> 』 편찬(1751~1772)
달랑베르	1717~1783	• <u>계몽사상 확산에 기여</u>



☆ 사회 계약설

- ① **정치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외롭고 가난하고 더럽고 동물적이며 단명한 존재에 불과하며, **서로 상대방과 싸우는 전쟁 상태**에 있다. 이러한 무정부와 공포,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요구되므로, 인간은 개인행동의 자유를 지배자의 손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합의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또다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인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 홉스(1588~1679), 『리바이어던』(1651)
- ② 자연 상태는 살기에 불편하므로 사람들은 공동 관심사인 사회와 정부를 세우기 위해 계약을 맺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모든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정부를 세우는데 합의(계약)하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진다면 물러나야 하며, **극단적 경우 혁명으로 타도될 수 있다**.
 - 로크(1632~1704), 『시민정부론』(1689 or 1690)
- ③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오직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회 계약을 맺는다. 인간은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적 자유 대신 정의와 도덕에 따르는 법적 자유를 얻는다. 계약을 통해 구성된 **국가의 주권은 전체로서 인민에게 있으며**, 전체 인민이 통치자라야 한다. 주권은 공공의 복리를 지향하는 **초개인적인 일반 의지**의 작용이다. 즉, **주권이라는 것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결코 남에게 양도될 수 없다**.
 - 루소(1712~1778), 『사회계약론』(1762)

☆ 백과전서

『백과전서 또는 문인협회에 의한 과학, 기술, 공예에 관한 합리적 사전(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권위에 대한 비판적 서술로 당국으로부터 발행 금지를 당하기도 하였다.

☆ 정치와 경제사상

구분	정치	경제
절대 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권신수설 : 보댕(1530~1596), 보쉬에(1627-17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주의 : 콜베르(1619~1683)
근대 의식의 발전	자연법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방임주의 옹호 ✳ 케네(1694~1774) • 중농학파의 시조 : 부(富)의 원천은 토지와 농업 ✳ 애덤 스미스(1723~1790) • 케네와 흄(1711~1776)의 영향 • 고전 경제학의 토대 마련 • 『국부론(國富論)』(1776) :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 ↳ 자원 배분의 효율성 :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주장
	계몽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로티우스(1583~1645) : 국제법 사상 • 홉스(1588~1679) : 개인의 자연권 포기(군주주권론) • 로크(1632~1704) : 시민 권리 중 일부를 정부에 위탁 • 이성 중시, 관습과 미신 타파 : 자유와 평등 옹호, 절대 왕정 비판 • 몽테스키외(1689~1755) • 볼테르(1694~1778) • 루소(1712~1778) : 사회계약설과 인민 주권의 원리

개념 Check

- ① ()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1543)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비판하고 지동설을 주장하였다.
- ② ()는 찰스 1세의 주치의로서 혈액 순환론을 연구하였고, 과학 혁명을 본격화하였다.
- ③ 사회 계약설은 자연계의 법칙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 사상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 ④ ()는 『사회 계약론』(1762)에서 일반 의지와 인민 주권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 ⑤ 루소, 디드로, 달랑베르 등은 『_____』(1751~1772)를 편찬하여 당대의 지식을 정리함으로써 계몽사상의 확산에 공헌하였다.
- ⑥ 영국의 애덤 스미스는 『_____』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주장하여 고전 경제학의 기초를 닦았다.


유형 CHECK!!

01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022-수능 특강 p.102, 01번]

서양사 인물 카드



- 이름 : (가)
- 출생 : 1642년 영국
- 학력 :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수학
- 주요 저서 : 『프린키피아(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 업적 : 천체 및 물체의 운동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여 기계론적 우주관 확립

- 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 ②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를 집필하였다.
- ③ 심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혈액의 순환을 주장하였다.
- ④ 행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도는 것을 발견하였다.
- ⑤ 인민 주권의 원리를 제시하여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0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22-수능 특강 p.102, 02번]



이것은 예술과 과학 등 여러 학문을 집대성한 책에 수록된 그림의 일부로, 공방에서 거울을 만들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

이 책은 (가)

이 책은 디드로가 편찬을 주도하였고 볼테르, 몽테스키외 등의 글도 실려 있지.

- ① 계몽사상의 확산에 기반이 되었어.
- ② 스토아학파의 출현에 영향을 주었어.
- ③ 영국 국교회가 등장하는 토대가 되었어.
- ④ 자크리의 난 등 농민 봉기에 영향을 주었어.
- 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체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어.

시민 혁명

【★청교도 혁명(1642~1649)】

01. 혁명 이전(16~17세기)의 영국 사회

- 장원제가 무너지면서 자영 농민층 형성
-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하며 토지를 축적한 **젠트리 계층**이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
- 상공업자, 전문직 계층 등 **시민 계급의 성장**
- 대부분 청교도였던 젠트리와 시민이 의회에 진출하여 다수 의석 차지
: 왕실의 부패 비판,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

✿ 젠트리(gentry)

신분상으로 귀족의 아래, 자영농의 위에 위치하는 계층으로, 대체로 지주가 그 중심을 이루었다. 법률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젠트리에 포함되었다.

02. 혁명의 발단

- **제임스 1세**(재위 1603~1625)
: 1567년 스코틀랜드 왕으로 즉위(제임스 6세)
: 1603년 **스튜어트 왕조**(~ 1714) 개창
: **왕권신수설 고집, 의회의 전통 무시, 자의적 조세 부과**
: 국교회를 강화하여 **청교도 탄압** → 청교도의 신대륙 이주(Pilgrim Fathers, 1620)
- **찰스 1세**(재위 1625~1649)
: 앙리에트 마리(Henriette Marie, 앙리 4세의 딸)와 결혼(1625)
: 프랑스, 에스파냐와의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자의적인 조세 부과 ⇨ 의회의 『**권리청원**』 제출과 승인(1628) ⇨ **의회 해산(1629)**
: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의회 소집(1640) ⇨ **의회**는 왕의 실정을 비판하고 **과세 요구 거부** ⇨ 국왕이 의회를 무력으로 탄압

03. 혁명의 전개

- ①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 발생(1642)**
- ② 철기대(鐵騎隊)를 이끈 크롬웰의 지도로 **의회파 승리**
- ③ 찰스 1세 처형(1649. 1월)과 **공화정 수립(1649)**

잉글랜드 및 그에 속하는 모든 영토의 국민은 앞으로 자유 공화국의 국민임을 확정하는 바이다. 또한, 이들 국민은 앞으로 자유 공화국인 이 나라에서 최고 권위를 지닌 의회에 국민의 대표로 파견된 사람들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관리 및 행정가로서 임명된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며, 국왕이나 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04. 크롬웰(1599~1658)의 정치

- 왕당파의 거점에 대한 원정 단행 → **아일랜드(1649), 스코틀랜드(1650)**
- 중상주의 정책을 반영한 **항해법(= 항해조례) 제정(1651)** → 네덜란드와 전쟁 발발
- **의회 해산(상원 해산, 하원 의원들의 임명직 전환)**, 성문 헌법인 『통치 헌장』 제정
- **호국경(Lord Protector) 취임(1653)**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세 나라를 통치
- 청교도에 입각한 금욕적 독재정 실시
: 금주령, 극장 폐쇄, 도박·경마 금지, 예배 참석 의무화



〈크롬웰〉

시민 혁명

★ 명예혁명(1688~1689)

01. 혁명의 배경

- 찰스 2세(재위 1660~1685)
 - : 프랑스 망명(1646)
 - : 스코틀랜드 의회에 의해 왕으로 선언됨(1649)
 - : 우스터에서 크롬웰 군대에 대패(1651)
 - : 크롬웰 사후(1658) 의회의 왕정복고 결정에 따라 즉위(1660)
 - : 청교도 혁명의 성과를 인정했지만 신앙의 자유를 명분으로 **가톨릭교도 우대 정치** 실시
 - ↳ 의회의 **심사법(1673~1828, 비국교도의 공직 취임 금지), 인신보호법(1679)** 제정
- 의회의 분화(1678~1681)
 - : 토리당[국왕 옹호, 국교회 지지, 유적(流賊) → 보수당]
 - : 휘그당[로크의 정치 이론에 영향, 입헌 군주제, 의회 존중, 폭도(暴徒) → 자유당]
 - : 휘그당의 의회 장악
- 제임스 2세(재위 1685~1688)
 - : 전제 정치 강화
 - : 친(親)가톨릭 정책 추진
 - ↳ **심사법을 무시하고 비국교도의 공직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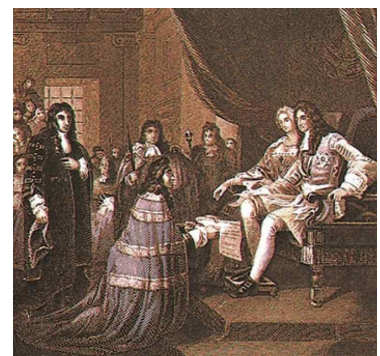
〈찰스 2세의 즉위〉

✿ 토리당(Tory Party)과 휘그당(Whig Party)

찰스 2세가 자신의 동생 요크 공작 제임스(후일 제임스 2세)를 차기 왕으로 세우려 하자 의회는 **요크 공의 왕위 계승을 지지하는 세력(토리)과 반대하는 세력(휘그)으로 나뉘었다.** 이후 토리와 휘그는 일종의 여당과 야당을 형성하면서 토리는 보수당으로 휘그 세력은 자유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19세기 영국 의회 정치를 이끌었다.

02. 혁명의 전개

- ① 의회의 제임스 2세 폐위(1688)
- ②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 공주와 그녀의 남편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
 - : 메리 2세(재위 1689~1694), 윌리엄 3세(재위 1689~1702)
- ③ 의회가 제출한 『권리장전』 승인(1689)



〈권리장전을 승인하는 메리와 윌리엄〉

03. 혁명의 결과

-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 토대 마련**
- 앤 여왕(재위 1702~1714)
 - :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
 - : **스코틀랜드를 병합하여 대영 제국 수립(1707)**
- 조지 1세(재위 1714~1727, 영어 NO!)
 - : 독일 하노버 가(家) 출신
 - : 하노버 왕조(1714~1901) 개창
 - :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 ↳ 의회 중심, **내각 책임제**의 정치 전통 수립



〈조지 1세〉

✿ 내각 책임제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행정 조직적인 내각을 구성하는 정치 체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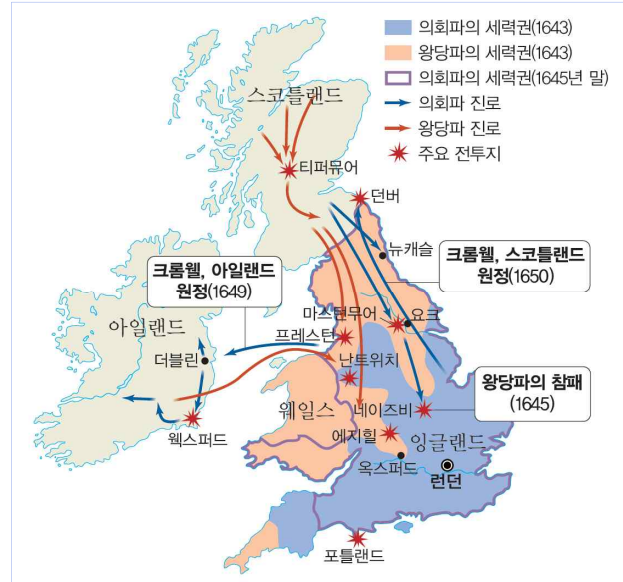


☆ 권리청원(1628)

현재 의회에 소집된 성직자, 귀족, 평민은 지극히 높은 국왕 폐하께 다음과 같이 탄원한다.

제1조 폐하의 신민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 아니면 어떠한 세금, 차입금, 기부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조금을 내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누린다.

제3조 누구도 적법한 판결과 국법에 따르지 않고서 함부로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자유인은 소유권과 특권 및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습을 침해당하거나, 법의 보호 밖에 방치되고 추방되는 일이 없다.



<청교도 혁명의 전개 과정>

☆ 항해법(1651~1849)

아시아·아프리카의 각 지역과 각각에 부속된 섬, 각 대륙의 일반 지도에 기재되어 있는 각 섬, 잉글랜드와 기타 제국의 식민지 - 이상의 전 지역에서 자라고, 생산되고, 제조된 물자들이, 잉글랜드 공화국과 아일랜드 본국과 여러 속령에서 수입하는 경우, 본 공화국이나 식민지의 국민이 정식 선주로 소유한 배로만 하며, 다른 어떠한 배로도 수입할 수 없다.

☆ 권리장전(1689)

종교와 법과 자유가 전복되는 위험에 다시 처하지 않도록, 국민의 완벽하고 자유로운 대표로서 모인 성직자, 귀족, 평민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옛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제4조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승인하는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 또 의회가 승인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6조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평화 시에 왕국 내에서 상비군을 징집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8조 의원의 선거는 자유롭게 않으면 안 된다.

제9조 의회 내에서 연설하고, 토론하거나, 의사 진행한 것으로 의회 이외의 법정이나 장소에서 고발당하거나 심문받지 않는다.

개념 Check

- ① 찰스 1세가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하고 청교도를 탄압하자, 의회는 ()을 제출하였다.
- ② 크롬웰은 1653년 ()에 취임하여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펼쳤다.
- ③ 찰스 2세가 가톨릭교도를 우대하자 의회는 비국교도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을 제정하였다.
- ④ ()으로 공동 왕으로 즉위한 메리와 윌리엄은 ()을 승인하였다.

유형 CHECK!!

01

밀줄 친 '그'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3-수능]

잉글랜드의 왕인 그는 의회를 해산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왕당파를 앞세워 시민을 억압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요크, 예지힐, 네이즈비 등지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다치고 사망하였으며, 공익·자유·정의 그리고 평화가 침해되었다. 전쟁에서 발생한 살인, 약탈, 방화 등을 비롯한 여러 실정(失政)이 명백한 유죄에 해당하므로 본 법정은 그에게 참수형을 선고한다.

- ① 명예혁명이 일어났다.
- ② 권리청원이 제출되었다.
- ③ 차티스트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④ 크롬웰이 호국경에 취임하였다.
- ⑤ 심사법과 인신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02

밀줄 친 '대립'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2-수능]

친구여,
잘 지내고 있는가? 요즘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하고자 글을 쓰네. 이곳의 상황은 날로 어수선해지고 있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20여 년 전 선왕의 즉위와 함께 왕정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왕은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의회가 심사법 등을 제정하자 결국 이를 수용했었지. 그런데 지금의 국왕은 그렇지 않다네. 의회를 무시하고 선왕 시절 제정된 그 법령들을 폐지하려고 한다네. 그동안 공직에 취임하는 자는 빵과 포도주가 각각 예수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화체설 교리를 부정하는 선서를 해 왔는데, 이제 그걸 없애겠다는 거야. 지난 11월에는 의회를 휴회하는 명령을 내리고, 선서를 하지 않은 자들을 관료로 임용했다는군. 국왕과 의회의 대립이 더 심해지는 듯하여 걱정이라네. 멀리 있는 자네에게 심란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미안하네. 아무쪼록 건강하시게.
멀리서 벗이

- ① 스튜어트 왕조가 개창되었다.
- ② 크롬웰이 호국경에 취임하였다.
- ③ 헨리 8세가 수장법을 발표하였다.
- ④ 찰스 1세가 권리청원을 승인하였다.
- ⑤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 왕으로 추대되었다.

03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6월 모의평가]



- ① 항해법을 공포하였다.
- ② 파리 코뮌을 진압하였다.
- ③ 대륙 봉쇄령을 선포하였다.
- ④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실각하였다.
- ⑤ 심사법과 인신보호법 제정을 주도하였다.

04

(가) 국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0-6월 모의평가]

국왕의 권한과 왕위는 부친이 사망하는 시점에 선언의 예식 없이도 이양되는 것이다. 충성스러운 상·하원의 의원들은 오랜 기간의 무력 충돌과 참극으로 인해 이제야 선언의 예식을 거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우리의 주권자 (가)이/가 서거하였을 때, 그가 보유하고 있던 잉글랜드와 모든 왕국들의 왕위와 주권, 그리고 권리는 혈통에 의한 적법한 계승 절차를 거쳐 찰스 2세에게 부여될 것이다.

- ① 심사법이 제정되었다.
- ② 항해법이 폐지되었다.
- ③ 명예혁명이 일어났다.
- ④ 토리당과 휘그당이 대립하였다.
- ⑤ 의회가 권리청원을 제출하였다.

시민 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1773~1783)】

01. 혁명 전의 북아메리카

- 17세기 신앙의 자유와 경제의 기회를 찾아 많은 영국인이 이주 : 버지니아(영국이 미국에 세운 최초의 식민지, 1607)
- 18세기 초 동부 해안에 13개의 식민지 형성 : 영국 총독 파견 : 독자적 의회 구성 등 광범위한 자치권 행사
- 로크의 자연권 사상과 사회 계약설, 루소의 계몽사상 유행



〈메이플라워호 서약(1620)〉

02. 혁명의 배경

- 영국의 식민지 정책 변화 : 프렌치·인디언 전쟁(⇔ 프랑스, 7년 전쟁, 1754~1763)으로 재정난 심화 : 인지세, 타운센드법(종이·유리·차 등에 대한 수입세 신설, 1767~1770) 등 각종 세금 부과 : 식민지 무역 활동 통제 등 중상주의 정책 강화
- 식민지 주민의 조직적인 납세 거부 운동 전개(1765) :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 차(茶)세만 남기고 철회

✿인지세법(1765)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발행하는 상업 및 법률 서류, 신문, 팸플릿, 카드, 달력 등에 1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하던 법이다.

03. 혁명의 전개

- ① 보스턴 차(茶) 사건(1773)
 -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 습격
 - 영국 정부가 보스턴 항을 폐쇄하며 강경 조치
- ② 필라델피아 제1차 대륙 회의(1774)
 -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 본국에 항의
 - 영국의 입법권 부정, 영국 상품 불매 등을 결의하는 선언문 발표



〈보스턴 차(茶) 사건〉

1.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영국) 식민지 주민은 생명·자유·재산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은 어떠한 주권적 권력에도 자신들의 동의 없이 상기 권리를 양도한 일이 전혀 없다.
4. 영국 정부의 기반은 인민이 입법 회의에 참가하는 권리에 있다. 또 영국의 식민지인은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 않고, 지역적 상황과 그 밖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표를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각각의 식민지에 설치한 입법 기관에서 자유롭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부여받고 있다.

- ③ 렉싱턴·콩코드 전투(1775. 4월)
 - 보스턴 근교에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의 충돌 → 독립 전쟁 발발

【★미국의 독립 혁명(1773~1783)】

03. 혁명의 전개

④ 필라델피아 제2차 대륙 회의(1775~1781)

- 대륙군 창설, **워싱턴**(1732~1799)을 총사령관으로 임명
- **토마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 『**상식**』 발표(1776. 1월)

아메리카는 지금까지 영국과 결합해서 번영해 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주장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영국은 조국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영국의 행동은 더욱 부끄러운 것이다. 짐승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지는 않는다. 영국과 결합함으로써 당하는 손해와 불이익을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인류 전체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려면 이 제후를 중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피가, 자연의 흐느낌 소리가, **이제는 영국에서 떨어져 나와야 할 때라고 외치고 있다.** ……

- **독립 선언문 공포**[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기초, 1776. 7월 4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한 진리로 믿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발생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⑤ 독립 전쟁

- 초반 열세 ⇨ 새러토가 전투(Battles of Saratoga, 1777. 9월) ⇨ 전세 역전
- **프랑스가 영국에 선전포고**(1778. 6월)
: 에스파냐, 네덜란드, 러시아, 스웨덴 등 열강의 식민지 대륙군 지원
- **요크타운 전투(1781)** 승리
- **파리 조약(1783)**으로 독립 승인 → 13개 공화국 성립

제1조 영국 국왕 폐하는 앞서 언급한 미국, 즉 뉴햄프셔, 매사추세츠만(灣), 로드 아일랜드 …… 조지아 등의 13개 주를 자유 주권 및 독립 국가로 인정한다.
제7조 영국 국왕 폐하는 …… 모든 전쟁 포로는 석방되고 영국은 미국에서 점령한 모든 장소에서 전쟁을 종료하는 데 동의한다.

04. 아메리카 합중국 성립(1789)

- **연방 헌법 제정(필라델피아 연방 회의, 1787)**
: 연방주의, 삼권 분립, 공화주의에 입각, 13개 주(州) 성립
- **워싱턴을 연방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1789)

05. 혁명의 의의

- 프랑스 혁명에 영향
-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독립운동에 영향

개념 Check

- ①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에 반발하여 식민지인들이 1773년에 ()을 일으키자, 보스턴 항이 폐쇄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었다.
- ② 필라델피아 제2차 대륙 회의에서 발표된 미국의 ()은 민주주의의 제반 원칙을 담고 있다.
- ③ 1781년 () 전투 승리 이후 북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은 () 조약으로 독립을 승인받았다.
- ④ 독립 전쟁 이후인 1787년 북아메리카의 13개 주는 물가 폭등 등의 사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을 제정하여 연방 정부를 수립하였다.
- ⑤ 독립 전쟁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유형 CHECK!!

01

밑줄 친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9월 모의평가]

대서양 너머의 본국 의회는 재정난에 직면하게 되자 식민지에 설탕세와 인지세를 부과했어.

인지세는 식민지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폐지했지만 곧이어 새로운 법을 제정해 차세 등을 징수하려 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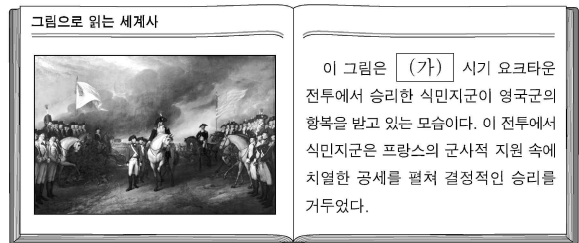
이에 분노한 식민지인은 본국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끝에 독립했지. 그들은 이를 혁명이라 불렀어.



- ① 찰스 1세를 처형하였다.
- ② 프랑스의 지원을 받았다.
- ③ 임시 정부를 무너뜨렸다.
- ④ 부패 선거구의 폐지를 초래하였다.
- ⑤ 카르보나리단(당)의 영향을 받았다.

02

(가) 혁명의 결과로 옳은 것은? [2021-6월 모의평가]



- ① 항해법이 제정되었다.
- ②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③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④ 아우크스부르크 회의가 이루어졌다.
- ⑤ 연방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03

(가), (나) 문서가 작성된 시기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20-9월 모의평가]

- (가) 영국 의회는 아래 세금들을 징수하기로 하였다. 아메리카 식민지 법정에 제출하는 진술서, 소장, 답변서, 이의 신청서 등의 문서에 인지세 3펜스를 부과한다. …… 신문, 잡지, 소책자 등에 실린 각각의 광고에 2실링을 부과한다.
- (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 선량한 식민지 주민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식민지 연합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이며 그럴 권리가 있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보기>

- ㄱ. 렉싱턴 전투가 발생하였다.
 ㄴ.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다.
 ㄷ. 영국이 7년 전쟁에서 프랑스와 싸웠다.
 ㄹ.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가) 문서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022-수능 특강 p.103, 04번]

5인 위원회가 조직되고, 위원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이 [가] 작성의 기초를 담당하였다. 제○차 대륙 회의에서 발표된 [가]은/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조직하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발생한다고 역설하였다.

- 『사료로 읽는 미국사』

(가)	(나)	(다)	(라)	(마)	
7년 전쟁 종결	보스턴 차 사건	렉싱턴 전투	요르타운 전투	연방 헌법 제정	워싱턴, 대통령 선출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프랑스 혁명(1789~1799)】

01. 혁명 전의 프랑스

- 구제도(구체제)의 모순(0.5% : 1.5% : 98%)
 - 계몽사상의 확산
 - 재정 적자 심화
- : 미국 독립 전쟁 지원(영국에 선전포고, 1778)
: 왕실의 사치 생활



〈구제도의 모순(Ancien Régime)〉

02-1. ★혁명의 전개

- ① 루이 16세(재위 1774~1792), 삼부회 소집(1614년 이후 처음 소집, 1789. 5월 5일)
- 성직자, 귀족에게 과세하는 재정 개혁 시도
- : 제1 신분(291名), 제2 신분(285名), 제3 신분 대표(578名)
- 표결 방식[신분별 표결(제1·2 신분) : 머릿수 표결(제3 신분)]을 둘러싼 대립으로 결렬
- ② 국민 의회(1789. 6월 17일~1791. 10월)
- 제3 신분 대표들이 헌법 제정, 질서 회복 등을 담은 ‘테니스 코트의 서약’ 발표(1789. 6월 20일)
 - 국왕의 국민 의회 탄압
 -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혁명 발발(화약 확보, 1789. 7월 14일)
- : 콩코르드 다리(Pont de la Concorde) 건설
- 혁명의 지방 확산 → 농민들의 귀족 공격, 장원 문서 소각
 - 봉건적 특권 폐지 선언(1789. 8월 4일)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 1789. 8월 26일) 채택
- : 라파예트(1757~1834) 기초
- : 자유와 평등, 저항권, 인민 주권의 원리, 법 앞에서의 평등, 소유권의 신성함 등 천명
- 베르사유 대행진(1789. 10월 5일)
- : 부녀자 중심의 민중 주도, 루이 16세 일가를 파리 툴리리(Les Tuileries) 궁전으로 데리고 와 감시
- 교회 재산 몰수, 길드 폐지, 행정 구역 개편 등 개혁 단행
 - 바렌스 사건(Affair Varennes, = 바렌 도주 사건, 1791. 6월 20일)
 - 입헌 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제에 기초한 새 헌법 제정(1791. 9월)
- ③ 입법 의회 소집(1791. 10월~1792. 9월)
- 지롱드파(부르주아의 지지)의 주도권 장악
 - 혁명전쟁 발발(1792. 4월)
- : 오스트리아·프로이센의 군사적 위협
- : 지롱드파가 오스트리아에 선전 포고
- : 젊은 의용군의 파리 집결,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
- : 발미 전투(Bataille de Valmy, 괴테 從軍, 1792. 9월 20일)

🌸 『8월 법령』 제1조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인신 예속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무상으로 폐지된다. 그 밖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유상 폐지의 대상이다. 이 법령으로 폐지되지 않는 권리와 의무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지속된다.

🌸 지롱드파(Girondins)

입법 의회 시기 정국을 주도한 온건파로 재산권을 옹호하면서 통제 경제를 반대하였다. 원래 국민 의회 결성 당시에는 좌파였던 자코뱅파(Jacobins)에 속해 있다가 온건한 입장을 취하며 갈려져 나왔다.

시민 혁명

【★프랑스 혁명(1789~1799)】

02-2. ★혁명의 전개

① 1792년 8월 10일의 혁명

- 식량 부족으로 파리 민중(상퀼로트)의 뵐트리 왕궁 습격
: 왕권 정지, 입법 의회의 루이 16세 퇴위 공포(1792. 8월)



<상퀼로트(sans-culotte)>

② 국민 공회 수립(1792. 9월 21일)

- 군주제 폐지, 공화정 선포(제1 공화정, 1792. 9월 22일)

열흘 전 왕정이 폐지되었다. 성직자도 귀족도 사라지고 평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기들만을 위한 공화국을 세워 부자와 관리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려는 사이비 애국자와 국민 전체의 이익과 평등을 위하여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애쓰는 진짜 애국자를 구별하라.
- 로베스피에르,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 자코뱅파(Jacobins, = 급진파 · 산악파)의 정권 장악(당통 · 마라 · 로베스피에르, 1792. 12월)
- 루이 16세 처형(1793. 1월 21일)
⇔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대프랑스 동맹 결성
- 혁명 재판소 설치(1793. 3월 10일), 공안위원회 설치(1793. 4월 6일), 마라의 죽음(1793. 7월)
- 자코뱅 헌법 제정(공화제 · 보통 선거제 등 규정, 1793. 8월 19일)
- 징병제 도입,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최고 가격제 시행(1793. 9월 26일)

③ 공포 정치(1793. 9월~)

- 자코뱅파(공화정 지지, 중소 시민 · 농민과 결합)의 에베르와 로베스피에르(1758~1794) 주도
- 마리 앙투아네트 처형(1793. 10월 16일), 당통 처형(1794. 4월 4일) 등 반혁명 세력 제거
- 봉건적 공납의 무상 폐지, 토지 분배, 의무 교육 등 급진적 개혁 추진

④ 테르미도르의 반동(공화력 11월, 1794. 7월 27일)

- 바라스, 탈리앙, 프레롱 등 온건 공화파 주도의 쿠데타
- 로베스피에르 처형

⑤ 총재 정부 구성(1795. 10월~1799. 11월)

- 1795년 헌법(8월) → 폴 바라스 등 5인 총재의 집단 체제
- 재정난 극복을 위한 대의 팽창 정책 실시
: 나폴레옹(1769~1821)의 이탈리아(1796), 이집트 원정(1798)



<테르미도르의 반동(Thermidorian Reaction)>

⑥ 나폴레옹의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공화력 10월, 1799. 11월)

-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 정부 수립 → 프랑스 혁명 일단락, 나폴레옹의 제1 통령 취임

03. 혁명의 의의

-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하고 시민 사회와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 자유, 평등, 우애(박애)의 혁명 이념 → 노예제 폐지 선언,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



☆ 『제3 신분이란 무엇인가(1789)』

제3 신분은 무엇인가? 전체이다. 그러나 족쇄가 채워지고 억압받고 있는 전체일 뿐이다. 특권 신분이 없다면 무엇이 될까? 전체, 그러나 자유롭고 건강한 전체가 될 것이다. 이들이 없다면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 그러므로 제3 신분은 국민에게 속한 전체를 포괄한다. 그리고 제3 신분이 아닌 모든 것은 국민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제3 신분은 무엇인가? 전체이다.

- 시에에스(1748~1836)

☆ 프랑스의 혁명 전야

(1789년) 7월 12일, 나는 마침 한 불쌍한 여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그녀는 시국을 한탄하면서 나라꼴이 비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겨우 한 뺨밖에는 안 되는 토지에다 소 한 마리와 비쩍 마른 망아지 한 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주 한 사람에게 밀 1프랑샤르(약 19kg)와 암탉 세 마리를 지대로 바쳐야 하고, 또 한 사람의 영주에게는 밀 4프랑샤르(약 76kg)와 암탉 한 마리와 1수의 돈을 바쳐야 합니다. 이 밖에도 무거운 인두세와 공납이 있지요. …… 인두세니, 봉건적 권리니 하는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 아서 영(1741~1820), 『프랑스 여행기』(1792)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 1789. 8. 26.)』

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으며 늘 그렇게 살아간다. 따라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면 사회적 차별을 둘 수 없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인민에게 있다. 어떤 집단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인민으로부터 직접 유래하지 않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든 처벌을 가하는 경우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능력, 덕성과 재능에 따른 차별 이외에는 공적인 위계, 지위, 직업 등에 평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

제17조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므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며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 프랑스 혁명기 정치 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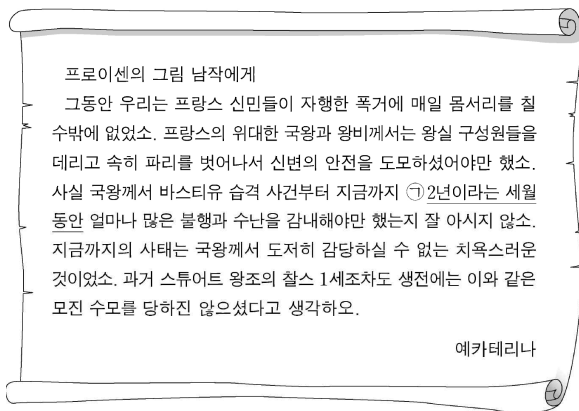
개념 Check

- ① 루이 16세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를 소집하였으나, 제3 신분은 기존의 신분별 표결 방식을 거부하고 머릿수 표결을 주장하였다.
- ② ()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을 발표하여 혁명의 이념을 천명하였다.
- ③ ()년 8월 자코뱅파는 공화제와 보통 선거제에 기초한 헌법을 제정하였다.
- ④ 로베스피에르(1758~1794)는 혁명 재판소와公安 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를 실시하였다.
- ⑤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를 타도한 온건파 의원들은 공화제와 선거제를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고 5인의 ()를 수립하였다.

유형 CHECK!!

01

밀줄 친 ㉠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2-9월 모의평가]



- ① 반혁명 세력을 색출하는公安 위원회 위원
- ②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루이 16세를 바라보는 시민
- ③ 새로 구성된 국민 공회에 참석하는 자코뱅파 인사
- ④ 프로이센 등에 맞서 혁명전쟁에 나서는 프랑스 병사
- 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 선언)을 발표하는 의회 의원

02

(가), (나) 문서가 작성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0-수능]

(가)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 인신 예속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무상으로 폐지된다. 그 밖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유상 폐지의 대상이다. …… 이 법령으로 폐지되지 않는 권리와 의무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지속된다.

- 『8월 법령』 제1조

(나) 열흘 전 왕정이 폐지되었다. 성직자도 귀족도 사라지고 평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기들만을 위한 공화국을 세워 부자와 관리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려는 사이비 애국자와 국민 전체의 이익과 평등을 위하여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애쓰는 진짜 애국자를 구별하라.

- 로베스피에르,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 ① 바스티유가 함락되었다.
- ② 입법 의회가 소집되었다.
- ③ 루이 16세가 처형되었다.
- ④公安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⑤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이루어졌다.

나폴레옹 시대(1799~1815)

[나폴레옹의 집권과 유럽 제패]

01. **통령 정부**(베토벤의 교향곡 3번 『에로이카(영웅)』(1803), 1799~1804)

- 혁명의 성과를 보존하며 군사·정치적 측면 강화
- **프랑스 은행** 설립(1800) → 국가 재정의 안정 도모
- **대프랑스 동맹** 와해
 - : 뤼네빌 화약(마렝고 전투, 오스트리아 격파, 1801), **아미앵 조약** 체결(~ 영국, 1802)
- 『**나폴레옹 법전**』 편찬(1804)
 - : 법 앞에 평등, 사유 재산권 존중 등 시민 사회의 새로운 규범 제시
- **국민 교육 제도 정비**

02. **제1 제정**(1804~1815)

- 국민 투표를 통해 황제 즉위(나폴레옹 1세)
- 제3차 대프랑스 동맹 결성(1805. 8월)



<노트르담 대성당, 나폴레옹의 대관식>

03. **유럽 제패 시도와 몰락**(1805~1815)

- **트라팔가르 해전 패배**(⇔ 영국, 넬슨 제독, 1805. 10월)
-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리**(⇔ 오스트리아·러시아, 1805. 12월)
- **신성 로마 제국 해체**(1806) ⇨ 라인 동맹 결성(Rheinbund, **오스트리아·프로이센 제외**, 1806. 7월)
- **대륙 봉쇄령** → 틸지트 조약(프랑스 ~ 프로이센, 1807)

- : 영국과의 통상 금지, 프랑스의 상품 시장 확대
- : 영국의 상품이 밀수입되어 대륙 국가의 고통 증가
- **모스크바 원정**(1812. 5월)
 - :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을 무시하고 영국과 통상 지속
 - : 원정 실패 → 제4차 대프랑스 동맹 결성
- **라이프치히 전투 패배**(1813. 10월)
 - ⇨ 오스트리아·프로이센·러시아 등 동맹군

✿ **대륙 봉쇄령(베를린(1806) ⇨ 밀라노(1807))**

1. 영국 여러 섬에 대한 봉쇄를 선포한다.
2. 영국과의 모든 교역과 서신 왕래를 금지한다.
3. 모든 영국민은 신분과 조건을 막론하고 우리와 동맹국의 군대에 의해 점령된 지역에서 발견되는 즉시 전쟁 포로가 될 것이다.
4. 영국민의 창고와 상품은 …… 합법적인 전리품으로 간주된다.

• 엘바섬 유배와 탈출(1814~1815)

- **워털루 전투 패배**(1815. 6월)
 - : 영국·프로이센 등 연합에 패배
 - : 세인트헬레나섬 유배

04. **나폴레옹 시대의 역사적 의의**

- 프랑스 혁명 이념의 전파
 - : **자유주의 이념 확산**
- 프랑스의 침략에 대한 저항 의식
 - : **유럽 각국의 민족(국민)주의 고양**
 - : 피히테, 『독일 국민에게 고함』(1806)



<나폴레옹 시대의 유럽 정세>

개념 Check

- ① () 시기 나폴레옹은 1800년 프랑스 은행을 설립하고, 1804년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였다.
- ② 나폴레옹 군대는 대프랑스 동맹을 주도한 영국에 맞서 () 해전을 치렀으나 패배하였다.
- ③ ()년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켰다.
- ④ 나폴레옹은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을 발표하였고, 1812년 이를 위반하는 러시아를 원정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유형 CHECK!!

01

밑줄 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4-수능]

시에예스를 비롯한 일단의 정치가들이 이탈리아 원정 등으로 인기가 높았던 장군을 앞세워 정변을 일으켰다. 파리 각지에 병력이 배치되고 정부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5명의 총재 중 3명이 스스로 물러났고 사임을 거부한 2명은 감금되었다. 다음 날 정변 주도자들은 의회에서 근위대를 동원하여 반대파의 저항을 무력으로 제압하였다. 곧이어 시에예스 등은 반대파 의원들을 자코뱅으로 규정하여 축출하였고 새로운 헌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에 대의제, 소유권, 평등권, 자유권 등을 담은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 ①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붕괴되었다.
- ② 공화정을 선포하고 파리 코뮌을 진압하였다.
- ③ 교육 제도를 개혁하고 국민 투표를 실시하였다.
- ④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발표하였다.
- ⑤ 제한 선거제에 토대를 둔 입헌 군주제를 시행하였다.

02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4월 학력평가]

프랑스의 제1 제정을 수립한 (가)은/는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키고, 에스파냐 왕실을 장악하였다. (가)의 침략에 반발한 에스파냐인은 봉기하였고, 프랑스 군대는 에스파냐 민중을 처형하며 보복하였다. 화가 고야는 당시의 이러한 참상을 그림으로 남겼다.



- ① 빈 체제를 주도하였다.
- ② 대륙 봉쇄령을 공포하였다.
- ③ 아도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 ④ 데카브리스트의 난을 진압하였다.
- ⑤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몰락하였다.

✿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

• 나는 얼마 전 프로이센의 부패한 관료 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보고 '살아 있는 세계정신'이라며 감격한 바 있다. 보편적인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는 그의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 헤겔(1770~1831)

• 지금 독일은 나폴레옹군의 침략을 받아 나락에 빠져 있다. 나폴레옹은 그가 가진 이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에 불과하다.

- 피히테(1762~1814)